

25

목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Jeju Philhamonic Orchestra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제주시립교향악단)은 도내 음악인들의 강한 열정과 무한한 노력으로 1985년 이선문 초대 지휘자와 단원 50명으로 창단, 이듬해인 1986년에는 교향악단으로 승격하여 지금까지 약 2000여회의 각종 연주를 통해 제주의 공연문화는 물론 음악 예술계를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 해외연주,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다양한 기획과 전문성을 갖춰 알차게 운영하여 '음악'으로 제주도민을 감동시키며 지속 가능한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제주도 내 학교 교가를 음반으로 제작 제공하여 다음 세대의 음악적 향상 및 발전을 기여하였고, 제주의 민요를 채보하여 녹음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킨 공로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



지휘자 김 홍 식



테너 전 승 철



소프라노 이 한 나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구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은 1985년 창단되어 르네상스와 고전, 현대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기획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 합창단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온 국민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대중적인 합창문화와 합창음악이 무대에서 줄 수 있는 모든 매력을 표현하는 전문적인 합창문화를 지향하며, 제주도민이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된 음악예술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더 나은 내일과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휘자 김 정 연



2024 한여름 밤의 예술공연

SUMMER NIGHT ART FESTIVAL

주최/주관 **Jeju** 제주시 문화예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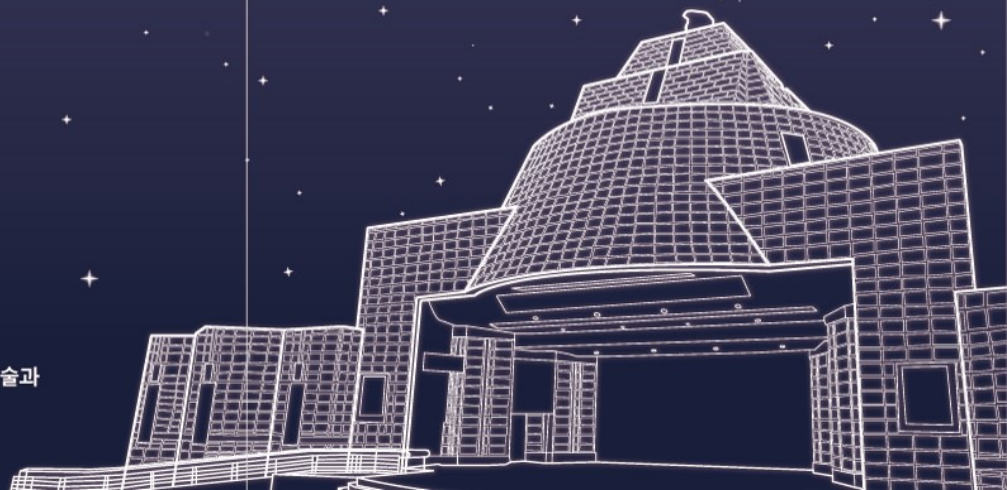
2024 한여름 밤의 예술공연

SUMMER NIGHT ART FESTIVAL

7.25^목-28^일 19:30~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

주최/주관 **Jeju** 제주시 문화예술과



26

제주도제라한태권도시범단

제주도 최초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태권도 시범단이며, 도내 초·중·고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권도 시범공연을 통하여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아트프로젝트 나무꽃

국악을 바탕으로 또다른 타 장르에 음악들과 어우러져 현대적이면서 전통적인 다양한 주제로 제주를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공연을 하며, 모든 음악 속에 이야기를 담아내는 아트프로젝트 그룹이다.

에피소드

2006년도에 창단하여 다양한 댄스 장르로,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경쟁하고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댄스팀.

거꾸로프로젝트

‘옛 것에 비추어 오늘의 해법을 구하다’라는 의미를 모토로 대중에게 친근한 밴드 사운드의 국악으로 전통음악을 보다 쉽고 재밌게 선보여 전통음악의 저변확대를 목표로 활동하는 퓨전국악그룹이다. 최근 국악오디션 프로그램 MBN 조선판스타' 결승 TOP4까지 진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무용협회

1989년 10월 27일 한국무용협회 제주도 지부 창립 이후 2023년까지 탈라문화제 무용제 개최, 전국무용제 제주예선대회 및 전국무용제 본선 참가, 전국 예총 산하 6대 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무용예술교류전, 제주춤 축제 등 다양한 무용예술 행사 및 축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였다.

우트레 브라스 앙상블

우트레 브라스 앙상블은 연주자와 청중들 모두가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감동과 공감을 나누고 관객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색채를 개성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21년에 창단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연주자들이 모여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음악적 표현을 시도 있게 연구하며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시도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오몰락밴드

깊은물에 빠진다는 의미의 제주 고유 방언의 의미를 담아 즐거움 樂과 음악장인 락(Rock)을 합쳐 즐거움 락(Rock), 음악에 빠진다는 의미의 오몰락(OML Rock)밴드. 록 음악을 추구하는 전문 음악인이 모여 결성한 오몰락밴드는 공연마다 관객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할락

할락(HALRock)은 “같이 하자”의 제주어로 대중음악을 인디스타일로 편곡하여 음악을 통하여 모두 다 같이 즐기는 제주지역의 적극적인 문화예술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제주브라스퀸텟

제주 출신의 전문 연주자로 구성된 금관 5중주 단체. 클래식, 가요, OST, CCM 등 다양한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여 고급스러운 금관악기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살려 웅장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이며 음악을 통해 제주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S-Flava

국악 비보이팀인 S-Flava는 우리것이 세계 최고라는 일념으로 한국전통의상과 전통탈, 그리고 국악 음악에 비보이를 하는 가장 한국적인 비보이 팀으로써 비트박스, 전자 바이올린 등과 협연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무대를 보이고 있는 팀이다.

27

Y-Kick

대한민국 태권도 공연예술의 선두주자인 Y-Kick은 예술적인 퍼포먼스 (artistic Performance)를 추구한다. 무도 시범은 인간의 육체가 갖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는 퍼포먼스에 스토리를 가미하였고,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형식의 음악과 미술, 무대, 조명, 음향효과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을 선보이며 예술성을 이끌어가고 있다.

제주가온민속예술단

창립 10주년을 맞은 제주가온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가온을 뜻을 포부로 삼아 제주도의 민속문화를 예술로 승화하여 민요, 무용, 퍼포먼스 등으로 제주의 민속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으면서 제주민속예술단의 봉사정신으로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오프닝제주

제주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전통문화요소를 융복합하여 전통타악기인 장구와 북으로 작품마다 다양한 장르의 특색을 넣어 화려한 퍼포먼스와 신명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순수 창작품으로 도 내에서 활발한 공연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나눔 봉사공연을 통한 제주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팀이다.

소리깨떼

우리의 국악이 먼 미국 땅의 음악인 스페인의 전통 음악 '플라멩고'와 만났다. 플라멩고에서 가수가 토해내듯 부르는 노래를 보며 우리의 판소리가 바로 떠오른다. 낯선 이국의 노래에서 '한(恨)'이 느껴지고, 관객과 함께 외치는 '할레오(Jaleo, 추임새)'에는 '흥(興)'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다른 언어, 다른 민족이지만 그들의 음악에서 우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크로스오버 음악이 탄생했다. 코리안 집시 사운드, 소리깨떼!

랜브리즈

‘육지에서 불어온 바람’이라는 뜻의 랜브리즈는 베이스리스트 정소진을 중심으로 2018년 결성된 팀이다. 제주의 다양한 페스티벌 참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2020년 1월 EP 앨범 [불어와 머물다]을 발매하였으며, 2022년 디지털 싱글과 2023년에는 디지털 싱글, 정규앨범 1집 (8곡 수록)을 발매하면서 자작곡과 대중 느낌을 혼합한 공연을 하고 있다.

28